

샤머니즘부터 시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삶의 지혜를 찾다

광주비엔날레 관련 포인트

40개국서 69작가(팀) 참여
5갤러리 여성작가 작품 집중 전시
옛 국군 광주병원 '오월 이야기'

'위로와 치유, 연대를 꿈꾸다.' '주류를 벗어난 다양한 시각으로 삶의 지혜를 찾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주제로 개막한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현장에서 만나는 작품들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다. 40개국 69작가(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관습과 고정 관념을 깨고 역압된 역사, 페미니즘, 샤머니즘 등에 대한 다채로운 시각을 다룬 작품들이 대거 등장했다. 또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각국의 상황을 담은 작품과 성소수자, 이민자 등 소외된 이들의 발언에 주목하는 작품들도 선보였다.

지난 3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 프레스 오픈 현장에서 만난 작품들은 샤머니즘부터 AI까지 인류 지성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조망해 눈길을 끌었다. 또 북유럽 원주민 사미족 출신인 오우티 피에스키의 '함께 떠오르기'와 '여성 선조의 금지의 모자' 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민족들의 역사와 잊혀진 문화에 대해 '새로운 목소리로 발언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였다.

'소통과 공감의 의미'를 담아 비엔날레 사상 처음으로 무료 개방, 김상돈 작가의 '카트' 등 8명의 작가 작품을 설치한 1전시실은 이후 2-5전시실로 이어지는 작품의 '프리뷰' 역할을 하며 관람객들의 흥

미를 돋는다. '산, 들, 강과의 동류의식', '돌연변이에 관해' 등 다양한 소재로 펼쳐진 전시공간에서는 토착민들의 생활 세계와 페미니즘에 대한 강렬한 목소리를 만나는 작품들이 전시됐다.

마지막 5갤러리는 '행동하는 모계문화'를 주제로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세실리아 비쿠냐 작가가 직접 제주를 찾아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녹음하고 그들의 숨터를 형상화한 작품은 귀를 기울이게 하며 릴리안 린의 '전기신부' 등은 '여성'에 대한 다채로운 시각을 선사한다.

비엔날레본전시관은 무엇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시 공간 구성이 흥미롭다. 나타샤 진발라 등 공동예술감독들은 '지속가능한 전시'를 지향하며 가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등 색다른 전시 공간 구성을 언급했고, 베디오고 파사리노가 제안한 5개의 전시실은 색다른 디자인으로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다양한 천 조각과 커튼으로 공간을 구획한 3갤러리는 전시장 벽면을 대형 유리로 구성해 자연풍경이 그대로 전시장으로 스며들며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광주국립박물관에서는 고대 유물과 이를 발굴하고 전시하는 인간의 관계를 무용과 영상으로 풀어낸 테오 에세투의 '고스트 댄스'가 인상적이었으며 광주국극장에서 열리는 주디 라들의 작품 등은 '영화관'이라는 장소를 살린 작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주제전과 별도로 '광주정신'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GB커미션'과 5·18 40주년 기념 다국적 프로젝트 '메이투데이' 광주전이 열리는 옛 국군광주병원 옛 '공간'이 갖고 있는 역사와 작가들의 작품이 어우러지면서 강렬한 인상을 준다. 오랫동안 폐허 상태였던 국군병원은 1980년 5월의 상흔을 그대로 안고 있고, 5000여포기의 데이터로 꽃길을 만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눈길을 끄는 인공지능 방역로봇(앞)과 도슨트 로봇(뒤).

들고 초등학교이 낭독하는 오월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헌의 작가의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_목소리'나 임민욱 작가의 '채의진과 천 개의 지팡이' 등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작품이다.

하지만 주제전 전시작품 중 한국의 무속 신앙 등 원초적인 샤머니즘적 요소가 너무 두드러진 점에 대해서는 관람객들의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또 죽음, 사후 세계 등 다소 어두운 주제들이 많아 심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며 처음으로 무



지난 31일 오전 광주 북구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프레스 오픈 행사에서 공개된 티모테우스 앙가완 쿠스노 작가의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

료 개방된 1 전시실 역시 개방 의도를 살리기 위해 좀 더 밝은 분위기로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팬데믹은 대형미술축제의 전시장 풍경과 관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날 프레스 오픈 행사에서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방역 서비스에 나선 로봇이 눈길을 끌었다. (주)타벵크가 지원한 방역 로봇은 자유롭게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방역을 하고 전시 작품을 설명했다.

또 방호복을 입은 방역업체 직원들이 수시로 방역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관람객들은 비엔날레 전시관 입구 뿐 아니라 매 전시실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해야하며 전시장 관람 역시 예약제와 현장 예매를 병행한다. 또 재단은 올해 도슨트를 운영하지 않고 대신 전시음성해설 어플리케이션 '큐피커'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오디오 가이드(휴대폰 다운로드)를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COP28 전남 유치 공동 노력... "범정부협의체 참여 균공항 이전 문제 풀자"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무슨 얘기나했나

노선 이전 광역철도망 단일안 제시

균공항 문제 등 상생의제 의견 나누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31일 광역철도망 구축과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전남 유치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주 균공항 이전 문제 해법을 '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마련해보자는 입장 표명 이후 만나 균공항 문제를 비롯해 시도 상생 의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최근 노선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단일안을 제시했다. 광주·전남은 광주-나주(상무역-혁신도시-나주역) 노선과 광주-화순(소태역-전남대 화순병원) 노선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특히 전남도와 경남도 10개 시·군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31일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만나 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 출범에 대한 공동 환영문을 발표하고 있다.

함께 유치전에 나선 COP28 남해안 남동권 공동 개최를 적극 지지하고, 광주시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28 유치에는 전남과 경남을

비롯해 제주, 인천 등이 관심을 보인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 회의(COP28) 유치가 확정되면 대한민국은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가로서 위상과 역할을 높일 것이며, 영호남 화합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 균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면 균공항 이전 문제도 시·도민의 신뢰와 수용 속에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광주와 전남은 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에 참여하여 이전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소원해졌던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시장·지사 회동을 계기로 상생모드로 급속히 전환되는 모양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물밑접촉을 통해 민간공항 이전 지연에 따른 광주시의 유감 표명, 전남도의 수용,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 참여, 광주·전남 상생 협력사업 전개 등을 협의가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靑 반부패비서관 김기표 경제정책 비서관 이형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날 초 신현수 전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거쳐 김진국 선임 민정수석 체제가 출범한 데 따른 후속 인사조치다.

김 신임 비서관은 사법시험 40회 출신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김 비서관은 검찰을 떠난 뒤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게이트에 연루된 홍남표 전 검사장의 조세포탈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사의설이 나왔던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이미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유임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남 기재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덕원 경제정책비서관의 후임으로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이 신임 비서관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과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에는 청와대에서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도 일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현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